‘서브프라임 쇼크’ 실물경제 덮치나

경제硏 “세계경제 둔화→수출 타격”

재경부, 성장률 하락 등 비관론 경계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쇼크가 금융시장을 거쳐 한국의 실물경제로 확산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기관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까지 위축되면서 한국의 핵심적 성장엔진인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당초 자신들의 분석과 전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해 하면서 서둘러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작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동산시장의 혼란으로 경제적 심리가 냉각돼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가를 선제적인 신호로 본다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기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투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2·4분기 투자의 호조는 중소기업·비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들 기업으로 금융권의 자금이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런 투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줄어들 가능성**=민간 연구기관들은 세계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를 수출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위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은 이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인정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재할인율을 내리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용경색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실물경기의 하강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한국은행 비관론 경계**=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실물경제에 파급된 것은 없다면서 지나친 비관론에 대해 경계했다.

이찬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변수를 다 검토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유럽 4개국 ‘비치서비스’ 삼성전자는 유럽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25개 유명 해변휴양지에서 8월말까지 한달간 24시간 즉석 A/S 전담팀을 운영하는 ‘삼성 비치서비스’ 캠페인을 펼쳐 해변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이탈리아 북부 리미니 해수욕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FRB, 재할인율 전격 인하

국내 증시도 안정 되찾을 듯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연일 폭락세를 면치 못했던 국내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격적인 재할인율 인하 조치로 이번주초부터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기대했다.

FRB는 지난 17일 재할인율을 6.25%에서 5.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할 때 요구하는 이자율로, 이를 인하하면 민간은행이 같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보다 늘어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FRB의 조치가 발표되자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오르며 7거래일만에 처음 상승해 13,000선을 회복하고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200포인트 이상 오르며 6,000선을 되찾는 등 글로벌 증시는 신용경색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FRB가 다음달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동안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 동안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던 일본 중앙은행도 23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 등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락을 면치 못했던 국내 증시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FRB의 재할인율 인하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반등함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4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3 18 21 23 26 39		1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911,774,240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1,274,816	26
3	5개 숫자 일치	1,231,179	1,294
4	4개 숫자 일치	53,462	59,600
5	3개 숫자 일치	5,000	959,025

팝콘복권 (제6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2조	354961
2	5억	2조	354960
		2조	35496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01799
5	1만	각조	327
6	2천	각조	72
		각조	42
7	1천	각조	2
		각조	9

매년 1조원 투자 영업이익 1조원 달성

‘기아 비전 2010’

조남홍 사장 밝혀

기아차가 올 임금협상을 완전 타결지음에 따라 조만간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아비전 2010’을 발족시킨다.

기아차 조남홍 사장은 18일 고 정주영 회장의 부인 변중석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경영정상화 방안인 ‘기아비전 2010’과 신차개발이 맞물릴 경우 이같은 목표가 달성가능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1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기아차의 2007년 임금협상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조만간 임금협상 조인식에 이어 ‘기아비전 2010’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아비전 2010’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기아차를 새롭게 창조하자는 종합추진계획으로, 기아차 노사와 기아차 우리사주조합이 공동 참여한다.

핵심 추진전략은 ▲장기비전 확보 ▲희망의 일터조성 ▲판매경쟁력 강화 ▲디자인경영 ▲원가혁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장기비전 확보’와 관련, 장기적으로 총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국내공장을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전환 등을 논의할 노사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했다.

‘희망의 일터조성’을 위해서는 기업문화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임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관을 정립하기로 했다.

‘판매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국내의 경우 기업 PR과 제휴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내수점유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기아차는 오는 2010년까지 모두 9종의 신차를 출시하게 된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될 소형 CUV 프로젝트 ‘AM’을 비롯해 준대형 세단 ‘VG’, 준중형 세단 ‘TD’, 준중형 쿠페 ‘XK’ 등으로 내년 2개, 2009년 5개, 2010년 2개씩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웅진코웨이·대교

공정위, 불법 다단계 영업 적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화장품이나 정수기, 학습지 등의 부문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단계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유통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의 경우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아모레퍼시픽도 방판사업부의 경우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는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판매원에게 일정액의 증원수당(1인 7만원, 추가시 1인당 10만원)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무주택자에 1%P 금리 인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판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 1% 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연소득(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05년 10월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됐다가 이번에 판매가 재개됐다.

대출금리는 차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1천600만~1천800만원 이하는 0.75%포인트 ▲1천800만~2천만원 이하는 0.5% 포인트가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게 적용된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는 연 6.5%, 15년 만기 연 6.6%, 20년 만기는 연 6.7%이다.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 수수료를 부담하면 추가로 0.2%포인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공사는 27일부터 기업·농협·신한·SC제일·경남·광주·제주은행과 삼성화재·LIG손해보험 등 9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9월 이후에는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하나·외환·대구·부산·한국씨티은행에도 이 상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